





둥지 같은 편안한 휴식처, Nest Hotel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부근에 최근 멋진 건축물이 하나 생겼다. 파사드(facade)는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박물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건물 외부로 길게 돌출된 통유리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미술관 같기도 한데 호텔이라고 한다. 틀림없이 저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호수는 남다른 조망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를 품고 호텔 정문을 들어서니 마치 중세 고딕성당 내부를 연상케 만드는 로비로 연결된다. 특별한 장식 없이 실내까지 노출콘크리트의 물성을 살리고 있는 높은 천장은 와플 구조의 장식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눈을 돌렸을 때, 외국의 디자인 어워드에서나 보았음직한 세련된 장식등이 빛을 발한다. 오늘은 네스트호텔의 젊은 호텔리어를 만나 그들의 직장이자 일상의 공간인 '네스트 호텔'에 대해 알아본다.

새얼 : 안녕하세요. 저희 새얼 <뉴스레터>는 새얼문화재단의 후원회원들에게 무료로 발송되는 소식지로, 특이한 직업, 장소를 탐방해서 알려드리는 문화특집 코너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스트(nest)’, ‘둥지’란 이름도 특이하지만, 호텔의 외관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네스트 호텔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네스트 : 네스트 호텔은 2014년 9월 12일에 개관했고 이제 곧 만 2주년이 됩니다. 지금 와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처음 이곳은 무성한 갈대숲이었어요. 처음 호텔을 계획할 때 갈대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갈대호텔이란 의미로 ‘리드(reed)호텔’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고객들이 왔을 때 ‘둥지’ 같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경영 철학과 호텔 콘셉트에 맞춰서 네스트 호텔로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슬로건도 “당신만의 은신처, 네스트호텔”이라고 정했어요.

네스트 호텔은 처음 건축디자인부터 제이오에이치(JOH)라는 브랜드 컨설팅 기업과 협업 과정



로비/ 플라츠레스토랑



을 거치면서 공간기획, 인테리어 등 모든 분야에 컨셉에 맞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로지 나만의 조용한 은신처를 뜻하는 ‘nest(둥지)’라는 단어의 본래 뜻에 맞게 사색하기 좋아하는 분이나 나만 알고 싶고, 나만 소유하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호텔을 추구하고 있어요.

기존의 1급 호텔이라고 하면 고가의 내장재와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져서 고객들이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게 할 때가 있지요. 대개 호텔에 들어가면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고 앉은 자리도 어딘가 편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 사장님은 특1급 호텔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내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과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고 주장하셨어요. 호텔이라는 곳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혼자 조용히 와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도시의 빠른 속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일깨우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새얼 : 들어오면서 외관을 살펴보니 박물관 같은 문화공간을 연상케 할 만큼 독특한 디자인이 두드러지더군요. ‘디자인호텔스’ 멤버라고 각인해놓은 것도 보이는데요.

네스트 : ‘디자인호텔스’는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디자인적 측면에서 뛰어나고 호텔의 철학이나 컨셉이 뚜렷한 호텔을 선정해서 호텔멤버로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호텔스는 전 세계 40여 개국 260여 개 호텔만이 멤버인데 국내에는 아직 디자인호텔스 개념이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디자인호텔스 멤버라고 하면 굉장히 인정해주거든요. 국내에는 저희 네스트호텔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호텔 두 곳만이 멤버로 선정되었는데, 물론 국내 최초로 디자인호텔스 멤버로 선정된 곳이 저희 네스트호텔입니다. 이외에도 저희 호텔은 내부 건축 소품이나 자재들을 모두 유명 디자이너들이 작업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비에 있는 등이에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졌는데 작가님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즉석에서 느낌대로 만들어서 달아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한 작품인 셈이지요. 그밖에 로비나 엘리베이터에 큰 그림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갖춘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부에 비치된 여러 디자인 소품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입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별도의 소품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쿤스트라운지/ 사우나실

새얼 : 건물의 실내외 인테리어도 독특하지만, 결국 이용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간은 레스토랑과 라운지 같은 공간일 텐데요. 지금 살펴보면 느끼는 것처럼 플라츠 레스토랑은 전체 조망이 매우 좋고, 게다가 좌석 배치는 공연장 객석처럼 되어 있어서 야외에서 펼쳐지는 조망을 하나의 공연처럼 바라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쿤스트 라운지는 유럽의 서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네스트 : 레스토랑 플라츠(Platz)는 독일어로 광장이란 뜻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출과 일몰을 같은 장소에서 바라보면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식으로 된 파노라마뷰 형태라서 어떤 테이블에 앉든 방해받지 않고 동일한 뷰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조식도 유명해서 아침에 일출을 바라보면서 조식을 즐기는 고객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쿤스트(Kunst) 라운지는 독일어로 문학, 예술을 뜻하는데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땡스북스라는 서점과 함께 저희 호텔 콘셉트에 맞는 책들을 선정해서 문화를 향유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여행자들을 위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닌 엄선한 책들로 꾸몄고,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사실

호텔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흔한 개념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것이 휴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운지이니까 당연히 와인을 비롯해서 가벼운 주류와 음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시면서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바닥에 시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여행하면서 남긴 아름다운 문장 한 구절을 동판을 떼서 다섯 곳 정도에 숨겨놓았습니다. 고객분들 중에서 그런 걸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얼 : 호텔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체로 첫째는 숙박, 둘째는 컨벤션일 텐데요. 객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요? 컨벤션을 위한 연회시설도 궁금하고요.

네스트 : 객실은 모두 370개 객실이 있는데, 총 3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위트룸, 디럭스룸, 스탠더드룸이 그것인데요. 스탠더드룸이 기본입니다. 조망에 따라서 산과 바다로 구분되는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객실은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산 전망 역시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고객 분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디럭스룸은 다른 호텔에서는 보기 어려운 디자인인데 침대와 테이블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침대가 창을 향하고 있어서 누우면 발끝으로 해가 오르고, 떨어지는 일출과 일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디럭스룸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내부의 모든 가구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된 것들이고 하다못해 노트, 연필까지도 모두 별도의 콘셉트로 디자인된 작품입니다. 투숙객의 신원 보호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모 힙합 그룹이 저희 호텔에 한 달여 동안 머무르면서 영감을 얻고 작업을 해서 그걸 토대로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쉬면서 작품을 쓰신 소설가도 계셨어요. 그럴 때 호텔 입장에서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문화예술가들이 머물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트룸도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스튜디오 스위트룸은 가장 기본적인 스위트룸이고, 리드 스위트는 욕조가 거실에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의 아늑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디자인되었고, 그런 이유에서 지금 로비는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객실 내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해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티오 스위트룸은 말 그대로 소규모 모임이나 가족들을 위한 파티를 할 수 있는 콘셉트입니다. 가족 단위나 친구들 대여섯 명이 와서 연말파티를 할 수 있는 파티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실이 따로 분리되죠. 무엇보다 이곳은 다른 스위트룸과 달리 산과 바다 전망이 모두 가능한 곳이어서 연예인들의 화보 촬영 장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서울 근교에서 저희





호텔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이 드물지요. 얼마 전에는 고객의 요청으로 테라스 바비큐 시설을 준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의 경우에는 네스트호텔 연회장이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연회장입니다. 연회행사를 하면서 자연의 호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지요. 야외공간과 연회장공간이 오픈될 수 있도록 폴딩도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야외공간과 연회장공간이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공간에서 야외행사를 진행하다가 연회장에서 공식행사를 진행하고 야외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리움의 경우 성수기일 때 수요가 많습니다. 아우디나 BMW 같은 수입차 신차를 소개할 때 저희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시승회 및 신차 발표회도 저희 네스트호텔에서 했습니다. 야외에서 직접 실내로 차량을 들일 수 있는 카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우디 Q7, 볼보 같은 경우엔 신차 소개와 더불어 곧장 시승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업이나 의학, 제약업계에서 많은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새얼 : 네스트호텔 같은 호텔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찾길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호텔리어로서 느끼는 보람과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스트 : 네스트호텔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무엇보다 존중합니다. 네스트호텔 건축의 원형이 ‘객실’인 것도 객실이야말로 호텔에서 고객이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호텔들은 전체 외관을 디자인한 후 그 안에 객실을 배치하지만 네스트호텔은 객실의 ‘원형’을 먼저 설계한 뒤 이를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네스트호텔의 가장 핵심 철학이자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새얼 : 이렇게 좋은 분위기와 운치 있는 호텔에서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네스트호텔이 처음 호텔을 준비하던 그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스트호텔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디렉스룸/ 리드스위트/ 파티오스위트

